マヘノショ ペストヘノきストゥノクティコ こいさと へどのハハト (life history) ペステ

A Study on Life History of Sang Gyoo Lee, a Professor of Kosin University

이현철

고신대 기독교교육과 조교수

목 차

- 1. 들어가면서: 교회를 위한 신학 그리고 이상규 | 370
- 2. 연구방법: 생애사(life history) 연구 | 373
 - 2.1. 연구 대상자: "1951년 1월 20일 출생, 李象奎" | 373
 - 2.2. 심층면담 및 자료 분석방법 | 375
 - 2.3. 연구 윤리 및 타당도 | 377
- 3. 고신의 역사신학자 이상규의 생애사 분석 | 377
 - 3.1. 초기 신앙생활 그리고 유년 시절의 이상규 | 377
 - 3.2. 청소년 시절의 이상규 | 380
 - 3.3. 대학 및 대학원 시절의 이상규 | 383
 - 3.4. 교수로서의 사역 시작과 호주 유학 시절의 이상규 | 386
 - 3.5. 연구자와 선생으로서 이상규 | 390
- 4. 나오면서: 개혁신학 안에서의 학문과 삶을 통합한 교회시가 이상규 | *392*



고신의 역사신학자 이상규에 대한 생애사(life history) 연구

본 연구에서는 고신의 역사신학자로서 교회를 위한 신학을 수행하였던 이상규의 생애를 질적연구방법 내 생애사(life history) 분석을 통해 탐색해보고자하였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경건한 신학을 추구하였던 이상규에 대한 생애사 분석은 학자로서의 이상규의 삶의 매력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담담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이상규의 개인적인 삶도 면밀하게 살펴볼수 있게 해주었다. 해당 분석 과정을 통하여 이상규의 생애에 대한 몇 가지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이상규는 개혁신학 안에서 학문과 삶을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이상규의 삶의 근본적인 동인은 신앙이었으며, 그것은 개혁신학의 틀 속에서 영위되었다. 개혁신학의 조명아래 이상규는 교회와 역사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상규는 역사신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이상규의 역사신학과 교회사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시절 부터 있어왔으며, 단순히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역사신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유익한 자극과 도움을 주기위해서 역사신학과 교회사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다,

셋째, 이상규는 자신의 삶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상규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꼼꼼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역사가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인 자료 수집의 면밀함과 철저한 자료 관리의 사항은 그의 기본적인 성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었다. 이상규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어진 소소한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그의 성품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베출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갔기 때문이다.

넷째, 이상규는 교회의 지도와 후원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상규의 삶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교회의 지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상규는 교수로서의 본질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상규의 삶에 있어 흥미로운 점은 항상 자신의 역할에 요구되는 본질적인 측면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교수로서 가장 핵심 사항이 연구하는 일과 학생 지도에 있어 최선을 다했다.

전술한 이상규 생애의 몇 가지 특징은 고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학문적 풍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신의 학문후속세대들에게 개혁신앙이 한 개인의 연구와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A Study on Life History of Sang Gyoo Lee, a Professor of Kosin University

> 주요어 이상규, 생애사, 개혁신학, 고신교회, 교회, 신앙

Abstract

A Study on Life History of Sang Gyoo Lee, a Professor of Kosin University

Prof. Dr. Hyunchul Lee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life history of Sang Gyoo Lee who had performed the research for the church as a historical theologian of the Kosin through the whole his life. The life history research of Sang Gyoo Lee was able to confirm not only the personal distinguish of Sang Gyoo Lee's life as a scholar but also the personal life of Sang Gyoo Lee who lived faithfully as a Christian. Through these analyzes, some characteristics of Sang Gyoo Lee's lif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ang Gyoo Lee tried to integrate life and scholarship in reformed theology. The fundamental motivation of Sang Gyoo Lee's life was Christian faith, and it was carried out within the framework of reformed theology. Under the light of reformed theology, Sang Gyoo Lee tried to understand the church and Christian history, and to integrate life on the basis of it.

Second, Sang Gyoo Lee conducted research for the church with a constant interest in the historical theology. Sang Gyoo Lee's interest in the historical theology and church history has existed since his youth, which has already been revealed through

the analysis process. He studied with pure passion and focused on the purpose of benefiting the church.

Third, Sang Gyoo Lee retains gratitude for the grace of God in his life. He kept the trivial materials of his life, and it was possible because of his character, but in essence he lived with gratitude for the grace God gave him.

Fourth, Sang Gyoo Lee was able to grow in the guidance and support of the church. The life of Sang Gyoo Lee was not formed by his own efforts, but it was possible because of the guidance and support of many churches so that he could grow up.

Fifth, Sang Gyoo Lee did not neglect the essential aspect as a professor. The interesting thing about Sang Gyoo Lee's life is that he did not lightly deal with the essential aspects of his role at all times. As a professor, he did his best in teaching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study and student guidance.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Sang Gyoo Lee's life not only show the faith and scholarly aspect of the Kosin Church and community, but also provide a practical content on how the reformed theology/faith can be implemented in a person's research and life.

Keywords

Sang Gyoo Lee, life history, reformed theology, Kosin church, church, faith

1. 들어가면서: 교회를 위한 신학 그리고 이상규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69년 「기독교사상」에는 '현대신서'라는 이름의 문고판 도서가 소개되었는데, 이때 민경배 교수의 『한국의 기독교회사』를 알게 되었고, 이 책은 내가 읽은 첫 교회사서였다. 물론 다 읽지도 못했고 다 이해한 것도 아니었지만 한국교회 연원에 대한 이런 책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었다..... 이 책이 나의 교회사 연구를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고등학생 때 '목회'는 생각 못했지만 학문으로서의 '신학', 특히 '교회사'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생각해 보니 1983년 고려신학대학 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34년간(이중 5년은 외국에서 연구한 기간이지만) 오직 교회사학 연구에 몰두하며 교수로 활동해 왔다.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적지 않지만 나로서는 오직 한길로 달려왔고, 나의 분야를 통해 나름대로 한국교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 '학문은 상아탑 속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교회사학의 대중화를 위해 강연하고 강의하고 연구해 왔다. 이제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다."

- 이상규의 회고

신학자들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유익한 자극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는 목사교수와 연구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 는 것이며, 신학 내 다양한 전공별 예외가 있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일찍이 Richard Muller가 강조하였듯이 이론과 현장은 깊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1) 어느 한 측면이라도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과 통합은 신학자들의 신학함의 근본적인 동인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신학함이 가지고 있는 '파편성'과 이론적 '건조함'을 극복하여 우리 고신 신학자들이 지향해야 할 핵심 방향으로 반드시 성취해야 할 주요한 과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신학의 고매함은 교회와 현장을 도외시 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며, 교회와 현장이 배제된 신학은 더 이상 고상한 것이 아닌 남루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2)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이러한 고매한 신학을 충실하게 경험하고 있지 못하며, 이를 수행하고 있는 신학자 역시 풍성하게 배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세대 신학자들 이후로 그동안 다양한 교단에서 3, 4세대에 이르는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부와 신학대학원에서 양성되어 연구와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부전공과 학문특성의 파편성에 함몰 되어 온전히 교회를 위한 생생한 지식들을 유의미하게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해석과 인식을 가지게 하는 이유는 분명한데, 그것은 여전히 이론-현장의 괴리에서 오는 답답함이 사역 현장 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으며, 목회자들은 사역을 향한 기능적인 자극과 유익함을 신학자들

¹⁾ Muller, R., 『The Study of Theology』(Grand Rapid: Zondervan, 1991). Muller는 통합적인 신학연구를 위한 의미 있는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파편화된 현상에 대한 대안 을 다루고 있다.

²⁾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진정한 개혁신학은 교회와 현장을 도외시하지 않는 것과 그 현장을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교회를 향한 칼빈의 생애를 보라! 그의 신학 작업은 그야말로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다. 교회를 향한 칼빈의 이와 관련된 사항은 김성봉, "교회 를 위한 칼빈의 신학."『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집』제4집: 85-127. 을 참고하라.

로부터 공급받지 못한다는 불평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3) 이러하 맥락에서 고신교회가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연구를 평생 수행해 온 이상규를 배출하고, 그를 통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고 은혜이다. 왜냐하면 이상규의 삶과 학문세계는 교회를 위함 이 핵심적인 가치이고 특징이기 때문이다.4) 이상규의 모든 연구와 작품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와 절대 무관하지 않으며, 자신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기기 위한 학문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상규의 가르침과 저술의 대부분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으며, 그 자신은 교회를 위한 신학을 철저하게 실천에 옮긴 인물이다.5)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신학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이상규의 가치는 더욱 빛이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빛난 가치를 고신교회는 잠시나마 마음껏 누릴 수 있어 감사한 것이다. 그동안 고신교회는 이상규를 통해 안정감 있는 교회사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고신 신앙 선배들의 고귀한 삶과 신앙적 결단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해석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교회를 향한 신학의 결과물들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고신의 울타리를 넘어 한국 역사신학계를 대표 하는 학자로서 고신의 자랑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신의 역사신학자로서 교회를 위한 신학을 수행하였던 이상규의 생애를 질적연구방법 내 생애사(life history) 분석을 통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경건한 신학을 추구하였던 이상규에 대한 생애사 분석은 고신교회가 가진 신앙과 학문적 풍모가 어떠한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고신의 학문후속세대들에게 개혁신앙이 한 개인의연구와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³⁾ 기독교연합신문, "목회현장과 괴리된 신학교육은 의미 없다," 『기독교연합신문』 2016 년 5월 23일 기사.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547 2017년 4월 25일 검색

⁴⁾ 박용규, "교회사가 이상규 교수의 학문세계," 『장로교회와 신학』 제13호(2017): 17.

⁵⁾ 박용규, 위의 논문, 18.

2. 연구방법: 생애사(life history) 연구

본 연구는 고신의 역사신학자 이상규의 삶을 분석하기 위하여 생애사적인 접근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생애사 연구는 한 개인이 구성하고 있는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변화하고 형성되는가를 통해서 개인의 삶에 담긴 의미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에 유익하다. 특별히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재해석 및 재구성한다는 의미에서 고신의 역사신학자 이상규의 생애를 이해하고 살펴보는데 적절한 접근법이라 판단된다. 60 더욱이 고신교회라는 거시적인 구조와 연결되는 이상규의 개인적인 삶은 생애사 접근을 통해 분석될 때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개인의 삶과 사회구조의 관련성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생애사의 목적기에도 부합된다.

2.1. 연구 대상자: "1951년 1월 20일 출생, 李象奎"

본 연구의 대상자로서 이상규는 6.25전쟁이 일어났던 해 곧 1950년 음력 12월 13일, 경상북도 영주군 안정면 용산동 780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양력으로 환산하면 1951년 1월 20일인데, 전쟁 중에 출생신고를 못해 호적상으로는 1952년 12월 13일로 되어 있다.

이상규의 아버지 이창(李昌, 1912-1952)은 농사꾼의 아들이었으나 농사는

⁶⁾ Samuel, M., "On Becoming a Teacher: Life History Research and the Force-Field Model of Teacher Development," in *Life History Research Epistemology, Methodology and Representation*, ed. Dhunpath, R. & Samuel, M.(Rotterdam, The Netherlands: SENSE PUBLISHERS, 2009), 3-4.

⁷⁾ 김영천·민성은, "생애사 연구", 『질적연구: 열다섯가지 접근』, 김영천·이현철 편(경기: 아카데미프레스, 2017), 245.

거의 못하고 공부만 하시다가 전쟁 중인 1952년 2월 24일 40세의 나이로 늑막염으로 사망했다. 이상규가 꼭 13개월이 되었을 때였다. 이상규의 어머니 박귀돌(朴貴乭, 1910-1993)는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동 출신인데, 17세 때인 1927년 11월 16일 이상규의 아버지 이창과 혼인했고, 1930년 장남 재영(李在榮, 1930-1950?)을 출산한 후 내리 10남매를 두었으나 절반은 죽고 절반인 5남매만 살아남았다. 이상규는 그 중 막내였다. 전쟁에서 맏아들과 남편을 잃은 이상규의 어머니는 위로 시부모를 모시고 아래로 남편 잃은 자부와 손자, 그리고 어린 5남매를 키워야 하는 과중한 부담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여러 차례 죽음을 생각했으나 어린 자식을 두고 갈 수 없었다고 하며, 그 무렵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상규는 1958년 4월 고향의 안정남부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년간 줄곧 반장을 하였다. 1964년 2월 초등학교를 제4회로 졸업한 이상규는 대구에 있던 메노나이트중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미국의 메노나이트교회의 사회봉사 기구인 MCC(Mennonite Central Committee)는 한국전쟁 기간 중 전쟁고아와 극빈자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구 인근에 학교를 설립했는데, 그것이 메노나이트 학교였다. 무상교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국에서 응시자가 몰려들었고 이상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하여 이곳에서 6년간 무상으로 중등교육을 받았다. 중고등학교 이후 이상규는 1971년 3월 고려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하였다. 1975년 신학사(BTh, 2급 정교사자격 취득), 1980년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MDiv), 1982년신학석사(ThM),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에 있는 장로교신학대학(PTC)에서 교회사를 연구(1987년~1990년)하고, 1996년 2월 호주신학대학(ACT)에서 신학박사(ThD) 학위를 받았다. 미국 Calvin College, Associated Mennonite Biblical Seminary 방문교수였고, 호주 Macquarie University 초기기독교연구소에서 연구했다.

이상규는 1982년 3월 고신대학교 신학과 연구조교로 임용 후 2017년 8월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대학 신학과 역사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8) 그는 고신대학교 부총장(2012년 2월~2014년 1월), 신학대학장(2005년 10월~2010년 2월, 2016년 4월~2017년 6월), 개혁주의학술원장(2010년 11월~2014년 8월) 등 다양한 학교 보직을 역임하였다.

이상규는 학부에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한국교회사 등과 대학원 역사신학 전공에서는 초기기독교와 사회, 근대선교운동사 등 교회사 전반에 대한 강의를 폭넓게 수행하였으며, 2017학년도 1학기 현재에서도 학부와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9) 그는 현재에도 왕성하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10), 한국장로교신학회, 개혁신학회, 부산경남교회사연구회 등의 학회장을 역임하였다.

2.2. 심층면담 및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심층면담은 '비구조적인 면담'을 추구하면서 이상규의 생애 연대기별 주요 사건과 회상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상규의 이해와 해석과 관련된 의견을 충분하게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생애에 대한 성찰적인 의미도 포함해보고자 하였다. 비구조적

⁸⁾ 이상규는 1982년 3월~1983년 2월 고신대학교 신학과 연구조교, 1983년 3월~1985년 9월 고신대학교 신학과 전임강사, 1985년 10월~1990년 9월 조교수, 1990년 10월~1995년 9월 부교수, 1995년 10월 교수

⁹⁾ 고신대학교 학생웹서비스 검색 http://kis.kosin.ac.kr/Gate/SAM/Service/Web/WEB Service.htm 2017년 4월 25일 검색

¹⁰⁾ 이상규의 단행본(저술), 단행본(공저, 편저, 역서), 학술논문, 번역논문은 그의 저작 목록을 참고하길 바라며, 그의 학문성은 통합연구학회학술상(1991), 한국교회사학 연구원 학술상(2010), 기독교문화대상(2010), 올해의 신학자상(2012)의 수항 이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활용되어졌다.

인 면담 과정은 일정한 질문과 형식적인 면담가이드를 통한 구조화된 면담 과정보다 연구자의 개입을 줄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연구대상자에 의지하 여 수행되는 특징을 가진다.11) 본 연구에서는 이상규 이외에도 현재 고신대학 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교수, 학교 직원들,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상규의 생애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들과 사건에 대한 사실성 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상규와 관련된 문서들도 분석의 대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상규의 일기, 편지, 사진 등 그의 생애와 관련된 자료들이 전 방위적으로 수집되어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자신의 삶을 정리한 간략한 회고자료도 포함되었다.12) 특히 자신의 삶을 정리한 회고자료는 연구 자의 연구를 더욱 실제적인 풍성하게 만들어준 주요한 연구자료가 되었다. 한편 생애사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 연대기적 시간 순서로 분석하기, 2) 인간관계 형식 중심으로 분석하기, 3) 공간 및 소속집단 중심으로 분석하기, 4) 가치관과 비전 중심으로 분석하기, 5) 삶의 대응 방식 중심으로 분석하기, 6) 사회적/역사적 맥락 중심으로 분석하 기로 구분할 수 있다.13) 물론 해당 사항들은 분절적인 차워에서 이해되어져서 는 안 되며, 연구 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대기적 시간 순서로 분석하기, 공간 및 소속집단 중심으로

분석하기, 삶의 대응 방식 중심으로 분석하기를 핵심적인 접근방식으로 구성 하면서 이상규의 삶을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그 외 다른 접근법들도

¹¹⁾ 이현철, "신정순 전도사의 삶과 신앙에 대한 생애사(life history) 연구," 『고신신학』 제16호(2014): 346.

¹²⁾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이상규의 삶을 더욱 현장감 있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의 치밀 함과 성실한 면모도 느낄 수 있었다. 특별히 그는 30여년 이상 꾸준히 일기를 쓰고 있었 으며, 그 일기 속에는 명망있는 교회사가 이상규가 아닌 '인간 이상규'를 만날 수 있었 다. 그 인간 이상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자만이 누렸던 특권이요 즐거움이었다.

¹³⁾ 김영천·민성은, "생애사 연구", 『질적연구: 열다섯가지 접근』, 김영천·이현철 편(경기: 아카데미프레스, 2017), 277.

2.3. 연구 윤리 및 타당도

연구윤리는 본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가치 및 기준 사항에 준하는 연구 접근방식을 취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연구대상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연구 타당도의 측면은 기본적으로 연구전반에 걸쳐 질적 연구 전문가들로부터의 연구과정 및 분석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과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연구대상자의 주변인물 및 내용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오류 및 진실성에 대한 사항들을확인 하였다.

3. 고신의 역사신학자 이상규의 생애사 분석

3.1. 초기 신앙생활 그리고 유년 시절의 이상규

전술한 연구대상자 관련 소개 절에서도 기술하였지만 이상규의 유년시절은 박귀돌의 헌신적인 가족 부양과 신앙적인 지도를 통해 삶이 영위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박귀돌이 처한 삶의 역경은 연역한 한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을까"하여 당시 박귀돌의 가족이 거주하였던 동네에서 아랫쪽에 위치한 영주군 안정면 (安定面) 용산동(龍山洞) 356번지 대룡산(大龍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전쟁에서 맏아들과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위로 시부모를 모시고 아래로 남편 잃은 자부와 손자, 그리고 어린 5남매를 키워야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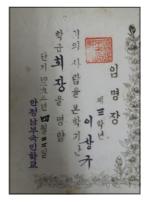
과중한 부담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러 차례 죽음을 생각했으나 어린 자식을 두고 갈 수 없어 궁리 끝에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을까 하여 아랫동내의 교회로 찾아갔다......어머님은 시부모 몰래 교회에 다녔고, 나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 교회가 영주군 안정면(安定面) 용산동(龍山洞) 356번지에 위치한 대룡산(大龍山)교회였다. 1923년 초에 설립된 이 교회가 명맥을 이어왔고, 내가 초등학교학생으로 이 교회에 다니던 때 성인 교인은 20여명, 주일학생인 30여명정도로 기억된다. 교회 출석은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의미였다. 기독교신앙과 기독교적 가치가 나의 삶과 학문 여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기때문이다......

-이상규의 회고 자료와 인터뷰 자료

이상규는 초등학교 입학시기부터 박귀돌을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이상규가 1958년 4월부터 안정남부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여 다녔으니고 시기가 그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고신의대표적 교회사가인 이상규의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시절 이상규는 시골의 작은 분교14)였지만 그럼에도 우수한 학생이었으며, 성실히 학교생활을 영위해 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이상규는 1학년 입학부터 6학년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학급 회장을 수행하였으며, 학업성적도 매우 우수하였다. 이 시절은 이상규는 박귀돌로부터도 신앙적 지도를 받았으나 초등학교 시절 그를 지도하였던 안정남부초등학교 교감 김기용 선생과 같은 신실한 신앙인으로부터 신앙적인 절개와 자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¹⁴⁾ 당시 안정국민학교가 있었으나 이상규의 거주지로부터 10리가 넘는 거리에 있어 안 정국민학교의 분교로서 안정남부국민학교가 개교하였음.





[그림 1] 이상규의 학급 회장 임명장(좌)과 4학년 성적표(우) (사진출처: 이상규의 소장 자료를 연구자 직접 촬영)¹⁵⁾



[그림 2] 이상규의 조부 이순(좌)과 그의 한시 작품집(우)

또한 이상규의 학자적인 풍모는 그의 조부였던 한학자 이순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규에 있어 할아버지 이순은 언제나 책을 가까이하며, 공부하시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이순은 한학자로서 이상규가

¹⁵⁾ 이후의 모든 자료 역시 이상규가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는 자료이며, 이를 연구자가 직접 촬영하여 자료화하였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천자문(千字文)에서 시작하여 명심보감(明心寶鑑) 동몽선습(童蒙先習) 소학(小學)까지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순은 지역사회에서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그 결과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러한 조부의 삶을 유년시절 보면서 학문함의 고상함이나 의미 등을 막연하게나마 동경하였으며, 학문을 통한 영향력의 실제적인 사항들을 목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3.2. 청소년 시절의 이상규

이상규에게 있어 청소년 시절은 기독교신학과 신앙에 대한 고차원적인 고민과 관심을 가지게 한 여러 사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점이다. 특별히 이상규는 이 시절 메노나이트 중고등학교를 다님으로서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개혁신학의 의미와 가치들도 깨닫게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미국의 메노나이트교회의 사회봉사 기구인 MCC(Mennonite Central Committee)가 한국전쟁 기간 중 전쟁고아와 극빈자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구 인근에 학교를 설립했으며, 그것이 이상규가 다녔던 메노나이트학교였다. 그 시절 무상교육이라는 이유로 전국에서 응시자가 몰려들었고 이상규는 그 경쟁에서 합격하여 6년간 무상으로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매일 30분씩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고, 모든 학생은 하루 2시간씩 노동하게 되어 있었다. 비록 미국 메노나이트교회가 설립했지만 교파나 그 신학을 가르친 일이 없고 그것을 요구한일도 없다. 나는 단 한 번도 메노나이트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들은 일이 없다. 단지 교목으로 계시던 김이봉 목사님이 메노나이트신

학교에서 1년간 유학하고 돌아와 유학경험을 이야기할 때 메노나이트 교회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 전부였다. 우리의 신앙교육은 장로교의 합동 혹은 통합 교역자가 담당했는데, 내가 수학할 당시 교목은 김이봉 목사(후일 상도교회 담임, 현 상도교회 원로목사)였고, 졸업할 무렵 부임하신 분이 김진홍 전도사(현 두레교회 원로목사)였다. 당시 김진홍 전도사는 알고 보니 장로회신학대학을 갓 졸업한 분이었다......중학생 당시 교장은 리렌드 보스(Lelend Voth) 선생님이셨다.

-이상규의 회고 자료와 인터뷰 자료

이상규는 메노나이트학교에서 수학하면서 메노나이트교회의 정신을 실제 생활 속에서 배우게 되었다. 이들의 평화주의적인 화해와 연합, 검소한생활, 제자도의 실천 등 그에게 있어 신앙 형성기에 소중한 기독교 정신으로다가갔을 것이다. 또한 그 시절 이상규는 도서실에서 영어 책들도 접하게되었고, 그 가운데「기독교사상」이라는 국한문 혼용이었던 잡지를 접하여신학이라는 학문을 접할 수 도 있었다. 그리고 그 무렵 본해퍼의 작품들이소개되고 있었으며, 『나를 따르라』(Nach forge), 『신도의 공동생활』(Gemeinsames Leben) 등을 접하였다. 이상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69년「기독교사상」에는 '현대신서'라는 이름의 문고판 도서가 소개되었는데, 이때 이상규는 민경배 교수의 『한국의 기독교회사』를 알게 되었고, 그 책은이상규가 읽은 첫 번째 교회사 관련 전문 서적이었다. 이러한 이상규의신학에 대한 관심과 몇몇 서적들을 통한 접촉은 그로 하여금 고등학교시절 신학과 교회에 대한 글을 작성하게끔 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쓴 첫 번째 신학적 주제의 글이기도 하였으며, 이후 학문적 활동을 꿈꾸게 하는계가 되기도 한 사건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69년 「기독교사상」에는 '현대신서'라는 이름의 문고판 도서가 소개되었는데, 이때 민경배 교수의 『한국의 기독교회사』를 알게 되었고, 이 책은 내가 읽은 첫 교회사서였다. 물론 다 읽지도 못했고 다 이해한 것도 아니었지만 한국교회 연원에 대한 이런 책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었다.....이 책이나의 교회사 연구를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고등학생 때 '목회'는 생각 못했지만 학문으로서의 '신학', 특히 '교회사'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상규의 회고 자료와 인터뷰 자료





[그림 3] 이상규의 1969년 판 『한국의 기독교회사』 소장 책(좌)과 고1(1967년) 첫 신학주제 글 원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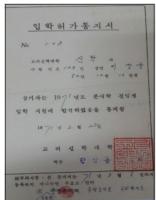
3.3. 대학 및 대학원 시절의 이상규

이상규는 1971년 3월 고려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하였다. 당시 이상규는 부산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부산의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다. 당시 부산 전포동의 성은교회에서 황창기 교수를 만나게 되었고, 또 김광한 전도사의 안내로 고려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고려신학대학은 1946년 9월에 설립된 고려신학교의 후신으로 1970년 12월 정규대학으로 인가를 받았기에 이상규는 정규대학이 된 후 첫 기로 입학한 학생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그의 동료는 40명이었으며, 작은 송도의 교정은 그에게 학문함을 자극하였던 장이었다.

이상규가 입학하던 당시 학교의 교장은 한상동 목사였고, 교수는 홍반식, 이근삼, 오병세 박사를 비롯하여 한부선(Bruce Hunt), 양승달, 허순길, 김성린, 김용섭, 정홍권 등이었다. 이상규의 초기 고려신학대학의 생활은 그가 기대하였던 학문적 활동과 수준을 충분하게 누리게 해주질 못하였으나. 안영복 교수의지도로 코넬리우스 반틸(Conelius van Til)의 『신앙의 변호』(The Defence of the Faith)를 강독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기독교사상을통해 진보적인 신학을 접했던 이상규에게 있어 기독교신학의 모든 가르침은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과 개혁신학은 로마 가톨릭이나 진보신학(지유주의신정통주의 등)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학습하면서 개혁신학이야 말로 참된 진정한 신학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교직 과목도 이수하여 교육학적인 역량도 합앙하였던 시기였다.

고려신학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화란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차영배 교수에게 한 학기 신앙고백서를 배웠다. 이때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서를 외우며 수업했던 기억이 남아 있다. 그는 곧 서울의 외국어대학교로 가셨고, 1973년에는 화란 자유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첫 해 손봉호 교수님을 통해 서양철학과 기독교철학 두 강좌를 배웠다. 영어와 독일어 화란어 등 세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때의 신선한 강의가 늘 기억에 남아 있다. 그의 예리한 눈빛에 지성이 흘러나고 있었다.

-이상규의 회고 자료와 인터뷰 자료





[그림 4] 1971년 고려신학대학 입학통지서(좌)와 고려신학대학 졸업 사진(우)



[그림 5] 신학과 학부 시절 학생 학술 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상규

또한 이상규는 그 시절 거의 독학으로 교회사 공부를 수행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상규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사 영역이었는데 당시 허순길 교수가 교회사를 담당하였으나 학위취득을 위해 유학을 떠난 시절이었기에 이 분야를 교수들로부터 공부하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이상규의 학문 적인 자극을 주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교수들로부터 제대로 배울 수 없었던 상황이 오히려 그가 교회사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수행하게 한 영향요인이 되기도 한 것이다.

그후 이상규는 1975년 2월 고려신학대학을 졸업하고 3월에는 고려신학대학 신대원(당시는 '본과'라고 불렀음)에 입학하였으며, 1975년 10월 23일육군에 입대, 1978년 4월 23일 병장으로 전역하였다.16 다시 1978년 신대원에복학한 이상규는 커버넌트신학교의 조셉 홀(Joseph Hall) 박사를 통해서 교회사에 대한 학문적 만족감을 얻게 되었다. 조셉 홀 박사는 한 학기 초빙교수로교회사를 가르쳤으며, 그로부터 종교개혁사를 배웠다. 당시 이상규는 강의내용을 동료들에게 통역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이런 계기로 이상규는 홀 박사와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도 있었다. 조셉 홀은 교회사학자가 되고자 했던 이상규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그 후에도 서신으로 교통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상규에게 있어 이 시기는 교회사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귀한시간이었으며, 그의 인생에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1980년 2월 신대원 과정을 마친 이상규는 대학원 석사과정(ThM)에 입학하여, 전공으로 조직신학을 선택하였다. 당시 이상규는 역사신학을 전공하고 싶었으나 교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조직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다. 이상규의지도교수는 이보민 교수였으며, 그는 '몰트만의 종말론적 신학'이라는 제목의논문을 썼다. 그 시절 몰트만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그에 대한 관심, 특히신학의 종말론화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해당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1982년 2월 고신대학 대학원을 마치고 신학석사(ThM) 학위를 받았다. 재미있게도 이상규는 그해 4월에 고신총회 부산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는데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므로 이상규는 강도사로 불린 일이없다. 당시 이상규의 동료들은 강용원, 김상석, 박삼우, 정주채 등이며, 이상규는 부산 초량에 위치한 삼일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¹⁶⁾ 이상규는 대학 재학 중 3년간 교련을 이수하였기에, 3개월 면제혜택을 받아 육군에서 31개월간 근무하고 전역하였다.

3.4. 교수로서의 사역 시작과 호주 유학 시절의 이상규

이상규의 교수사역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1982년 연구 조교, 1983년 3월 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것이다. 실제로 이상규가 고려신 학대학에서 처음 가르친 때는 1980년 3월 학기였으며, 이 시기는 그가 신대원을 졸업하던 시기였다. 그는 1980년 1학기 대학영어(1학년)와 이론신학 원강(신3)을 통해 첫 강의를 하였지만 정식 교수로서의 활동은 전술한 사항에서 이루어진 시기부터 이며, 그에게 있어 가르침의 보람과 행복감이 매우 높았던시기로 볼 수 있다. 특별히 많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수로서 생활을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강의 준비가 충실하였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일은 신나는 일이었고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갓 석사학위를 마친 애숭이 신학도였으나 가르치는 위치에 설수 있었다는 자부심과 그 특권이 나를 압도하였다. 나는 봉급이 얼마인지, 호봉이 얼마인지 봉급체계도 모르고 살아왔다. 그저 가르치는 교수라는 사실만으로도나는 행복했다. 나는 사전에 강의 준비를 철저히 했고, 한국교회사는 물론이지만 서양교회사도 거의 암기하여 교안을 보지 않고 강의했다. -이상규의 회고 자료와 인터뷰 자료



[그림 6] 교수임용 초기, 신학과 전임강사 시절의 이상규

이상규는 대학에서 5년을 일한 후인 1987년 2월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된다. 당시에는 교수 중 박사학위 소지율이 50%정도에 불과했고 석사학위 만으로도 가르치는 일이 허다했다. 이상규는 유학을 결심하고 당시 처남이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학비 없이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남아공을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또 스위스의 바젤대학의 교수이자 WARC의 신학부장이었던 루카스 휘셔(Lucas Vischer) 박사, 영국 런던의 존 스탓트(John Stott), 에딘버러의 데이비드 라이트(David Wright) 등과도 접촉하여 유학의 길을 모색해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상규는 자신과 함께 삼일교회 대학부를 섬기던 호주출신 OMF 여선교사 세실리 모어(Cecily Moar)의 강력한 추천으로 호주 멜버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으며, 호주 멜버른의 장로교신학대학(PTC)에서 공부하면서 학위공동관리기구인 호주신학대학(ACT: Australian College of Theology)의 학사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상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으로 학비를 전액 면제받았고, 빅토리아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Victoria) 총회 해외선교위원회에서는 이상규의 비 네 식구의 비행기 표까지 제공해주었다. 또한 빅토리아주 여전도회연합회(PWMU)는 월 800불씩 생활 장학금(stipend)을 지원해 주었으며, 그것도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귀국할 당시는 월 1천불에 가까이 되어 박사과정학생으로서는 최상의 대우를 받으며 공부를 할 수 있었다. 호주의 학위제도는 유럽식으로 리서치 중심이었으며, 스코틀랜드와 캐나다에서 공부한 스츄어트 길 박사(Dr. Stewart Gill)가 지도교수였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호주에서 유학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는데, 이상규는 호주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은 두 번째 한국인이었다.17) 이상규는 멜버른에

¹⁷⁾ 호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수득한 첫 한국인은 장신대학교 교수였던 김이태 박사였다. 하지만 이상규는 '호주신학대학'(ACT)에서 박사학위를 얻은 첫 한국인이기도 한데, 김이태 교수는 '멜버른 신학대학'(MCD)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

서 유학하는 동안 1988년 7월 멜버른 한인장로교회를 설립하고 이민자 및 유학생 목회도 겸했는데, 귀국할 당시 120-130여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이상규는 1990년 2월 귀국하게 되는데 대학이 오직 3년간 휴직을 허락했기 때문이었다. 연구휴직으로 허락 받은 3년 안에 박사학위 연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웠으며, 대학으로 돌아와 일하면서 논문을 완성하고 심사를 거쳐 1996년 2월 호주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얻게 되었다. 이상규의 박사학위논문의 제목은 "A Study of th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1889-1941"이다.18)





[그림 7] 호주신학대학 유학생으로서 이상규와 그의 가족에 대한 소개(좌)와 신학박사학위 취득(우)

문이다.

¹⁸⁾ 이상규의 박사학위 논문은 1889년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의 첫 한국 선교사인 J. H. Davies의 내한(1889)에서부터 대동아 전쟁으로 호주장로교(APM)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추방되기까지(1941) 약 50년간 한국에서 시행된 호주장로교회의 한국선교사(宣敎史)를 연구한 논문으로서, 한국에서의 기독교와의 접촉과수용, 호주장로교회의 형성과 한국에서의 선교사업의 기원과 발전, 전도, 의료, 교육활동, 그리고 일제하에서의 기독교교육에 대한 탄압과 선교부의 대응, 교회성장의 문제, 신사참배 문제를 둘러싼 총독부와 선교부, 그리고 본국교회와의 토론 등을 취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1889년부터 1941년까지 내한한 78명의 선교사들의 활동과 이들이 한국, 특히 주 선교지였던 부산, 경남지방에 끼친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Sang Gyoo Lee, A Study of th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1889-1941 (Australian College of Theology, 1996).





[그림 8] 멜버른 한인장로교회 설립 1주년을 소개한 현지 New Life 신문 1989년 8월 31일 기사(좌)와 당시 교회의 주보집(우)

3.5. 연구자와 선생으로서 이상규

이상규는 1983년 고려신학대학 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33년간 교회사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의 교수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는 개혁주의였으며, 이 신학적 토대에서 연구하고 가르쳤다. 그야말로 자신의 전공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해 왔다. 교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연구와 교수이기에 다른 욕심 없이 본업에 충실하고자 했고, 이 일에만 집중하고 살아온 것이다.

이는 그의 다양한 학문적인 출판물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그의 주요저서로서는 『성경연구의 이론과 실제』(총회 교육위원회, 1986), 『한국장로교회사』(총회 출판부, 1988), 『성경연구 입문』(총회교육위원회, 1992), 『행복한 가정생활』(공저, 기독교대학 설립 동역회, 1992),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서편제』(공저, 기독교대학 설립 동역회, 1993), 『교회개혁사』(성광문화사, 1997), To Korea with Love: Th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889-1941(1996), 『성경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총회교육위원회, 1998), 『고신선교 40년』(공저. 총회선교부. 1998). 『의료선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 까?』(한국 누가회, 2000), 『기독교강요란 어떤 책인가?』(역서, 고신대학교출 판부, 2000), 『한상동목사, 그의 생애와 신앙』(공저, 글마당, 2000), 『교회의 역사』(영문, 2000)、 『부산지방 기독교전래사』(글마당, 2001)、 『부요의 저편』 (공저, SFC, 2002), 『교회개혁과 부흥운동』(SFC, 2004), 『헬라로마적 상황에 서의 기독교』(SFC, 2006. 3),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한국교회와 역사연구소, 2006), 『한상동과 그의 시대』(SFC, 2006),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고신대학교 출판부, 2007)、『한국교회 역사와 신학』(생명의 양식, 2007)、 『교양으로 읽는 역사』(SFC, 2009),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본 전쟁과 평화』 (역서, KAP, 2010), 『헤리티지 스토리』(역서, CLC, 2011), 『구포교회 100년, 그 은총의 날들 1905-2005』(구포교회, 2011), 『부산경남지역 기독교회의 선구자들』(고신대학교 출판부, 2012)、『日本の朝鮮支配とキソスト教會』(공 저, いのちのことば社, 2012. 9), 『한국교회와 호주교회 이야기』(공저, 장로교출 판사, 2012. 9), "WCC, 참된 교회연합운동인가』(공저, 영음사, 2012. 10), 『베어드의 선교일기』(역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3. 2).『구약의 메시지』(킹덤북스, 2013)、『경남지방기독교전래사』(편저, 부경교회사연구 회, 2014. 01). 『기독교대학과 교육』 (편저, 고신대학교 출판부, 2014), 『산돌 손양원의 목회와 신학』(공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4), 『고신교회의 여성지도자들』(편저, 전국여전도회연합회, 2014), 『한경직 목사와 한국교회』 (공저, 대한기독교서회, 2015), 『기독교대학과 사회과학』(편저, 고신대학교 출판부, 2014), 『동아시아 역사 속의 선교병원』(공저, 역사공간, 2015. 4), 『한국교회사의 뒤안길』(킹덤북스, 2015. 7), 『해방전후 한국장로교회의 역사 와 신학』(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5. 10), 『초기 기독교와 사회』(SFC,

2016), 『교회재건운동과 고신교회의 형성』(생명의 양식, 2016), 『종교개혁의역사』(SFC, 2017). 이 이외에도 이상규는 많은 전문 학술 논문도 작성하여학문적인 통찰력을 제공해주었다. 특히나 부산·경남 교회사와 관련된 그의연구는 해당 분야의 초석이 되어 귀중한 자료로서 그 학술적 의의가 크다고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인 활동은 학회를 통해서 인정받게 되는데 2012년 7개의 학회가 연합하여 구성한 '칼빈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가 연세대학교 이양 호, 백석대학교의 권호덕 교수에 이어 이상규를 '올해의 신학자 상'의 수상자 로 선정한 것이다.





[그림 9] 2012년 올해의 신학자 상을 수상(좌) 그리고 논문을 발표하는 이상규(우)

이상규는 탁월한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여 존경받는 선생이기도 하였다. 연구기간 이상규를 조사하면서 교계 및 목회자들로부터 이상규의 선생으로서의 미담들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재학생을 위해 등록금을 내어준 일, 신앙적인 도전과 자극이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일,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등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 교수 사역을 수행하였던 참 선생으로서의 이상규의 삶이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학문적 수월성과 함께 그가 교수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하는 학생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섬기며 사역하였던 것이다.19)

4. 나오면서: 개혁신학 안에서의 학문과 삶을 통합한 교회사가 이상규

본 연구에서는 고신의 역사신학자로서 교회를 위한 신학을 수행하였던 이상규의 생애를 질적연구방법 내 생애사(life history) 분석을 통해 탐색해보고 자 하였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경건한 신학을 추구하였던 이상규에 대한 생애사 분석은 학자로서의 이상규의 삶의 매력 뿐만 아니라 한 그리스도 인으로 담담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이상규의 개인적인 삶도 확인 해볼

¹⁹⁾ 이와 관련하여 필자도 이상규 교수님의 참된 선생으로서의 면모를 직접 경험하였는 데 필자가 학부 시절 그의 2000년 2학기 '한국교회사' 수업을 수강하였을 때의 이야기 이다. 이상규 교수님은 외국 선교사들의 한국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강조하며, 우리들 이 영어 실력을 갖추어야 할 것을 강조하셨다. 수업을 마치며 이교수님은 '영어를 잘하 고 싶은 사람은 내 연구실로 찾아오라'라는 말을 남기셨고, 나는 그 말을 순진하게 듣 고 교수님의 연구실로 찾아갔다. 연구실로 찾아갔더니 이교수님께서는 엉뚱한 주문 을 나에게 하셨다. 보수동 헌책방에서 가서 중학교 1.2.3학년 영어책을 구입하여 다시 연구실로 찾아오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왜 중학교 헌책을 사오라는 걸까' 궁금 했지만 나는 보수동 헌책방에서 가서 그 책들을 구입하였다. 헌책을 살 때 많이 아까웠 다. 헌책을 구입하여 다시 찾아온 나에게 교수님은 매주 시간을 정하여 일정 분량의 중학교 영어책의 내용을 암기할 것을 주문하셨고. 그 후로 오랫동안 매주 영어 암기 사항을 직접 체크해주셨다. 중학교 영어책은 영어의 기본 문법적 사항을 담고 있기에 영어의 문법과 기본 회화를 익히는데 가장 안성맞춤인 자료였던 것이다. 교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교수님은 나에게 한주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암기하였 는지 자신이 직접 책을 펴서 내가 수행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주셨다. 연구실 의자에 비스듬히 앉으셔서 '암기해보라'라고 하시면 나는 한 주간 동안 외웠던 내용을 교수님 앞에서 외원던 기억이 난다. 만약 본인이 여러 업무와 일정으로 출타할 경우 연구실 조교에게 정해진 시간을 일러두어 나의 영어 암기 분량을 확인하도록 주문을 하기 까지 하셨다. 지금의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교수의 생활도 분명 바빴을 텐데. 한 어린 학부생의 마음을 보시고 시간을 내어 학생을 지도해주신 것이었다. 이교수님 의 관심과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학생을 향한 참된 선생의 태도 와 마음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한다. 지금도 고개가 숙여지고, 감사한 마음 을 표현할 길이 없다. 이교수님께서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도한다.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이상규의 생애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이상규는 개혁신학 안에서 학문과 삶을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이상규의 삶의 근본적인 동인은 신앙이었으며, 그것은 개혁신학의 틀 속에서 영위되었다. 개혁신학의 조명아래 이상규는 교회와 역사를 이해하 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학문과 삶의 구분이 아니라 개혁신학의 안정감 속에서 학문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상규의 학문적인 결과물들과 그가 수행하였던 인생의 행보를 보면 서로 분절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해석과 판단의 지향점들이 고스란히 자신의 삶에도 적용되어 실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이상규는 역사신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이상규의 역사신학과 교회사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시절부터 있어왔으며, 이는 이미 분석 과정을 통해서 밝힌 바이다. 단순히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역사신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유익한 자극과 도움을 주기위에서 역사신학과 교회사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던 것이다. 실제로 그의 연구물들의 대부분은 교회를 위한 연구이며, 이는 지금도 현장 사역자들에게 특정한 역사적 이슈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정감이 있는 틀을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나 부산·경남 교회사와 관련된 그의 연구는 해당 분야의 초석이되어 귀중한 자료로서 그 학술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상규는 자신의 삶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상규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꼼꼼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역사가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역량인 자료 수집의 면밀함과 철저한 자료 관리의 사항은 그의 기본적인 성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었다. 이상규는 자신의 초등학교 1학년 성적표, 대학시절 장학금을 받았던 봉투, 자신이 영어경시대회에 수상한

자료들 등등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어진 소소한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그의 성품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 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갔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는 30년 이상 매일 일기를 쓰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었고, 매일 자신의 삶을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었다.

넷째, 이상규는 교회의 지도와 후원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상규의 삶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교회의 지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이상규의 청소년 시절 중·고등학교에서의 공부, 대학시절 교회로부터의 장학금, 유학시절 호주교회의 지원 등 그의 삶에서 교회의 기도와 후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였으며, 결국 그 열매로서 지금의 고신 역사신학자로서 이상규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섯째, 이상규는 교수로서의 본질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상규의 삶에 있어 흥미로운 점은 항상 자신의 역할에 요구되는 본질적인 측면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교수로서 가장 핵심 사항이연구하는 일과 학생 지도에 있어 최선을 다했다. 특히 학생 지도에 있어 그는 철저히 수업을 준비하였으며,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겸손하였다. 교수가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학생이 존재하기에 가능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사역의 장으로서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한 것이다. 공부하고연구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자신이 공부한 그것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나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의 삶의 향기가 후학들에게 이어지기를소망하다.

전술한 이상규 생애의 몇 가지 특징은 고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학문적 풍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신의 학문후속세대들에게 개혁신앙이한 개인의 연구와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고신교회가 잊지 말고 집중해야

할 것이 지속적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음세대를 키워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데, 교회가 '한 시골의 소년 이상규'를 신앙으로 지도하고 후원함으로 그의 삶이 개인적으로는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는 인물로 자라났으며, 공동체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학문을 수행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Soli Deo Gloria!